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목회와 영성” 주제로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matocal)에서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7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오는 3월 27일에 개강한다. 6월 5일까지 총 10주간 매주 월요일에 계속될 이 세미나는 강남 YMCA 대강당에서 한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목회와 영성」으로 제 1교시는 지난 5학기부터 계속해 온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가 이어지며, 제 2교시에는 국내외 강사들과 함께 죄와 죽음, 그리고 가치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파괴와해야 할 존재인 인간의 영성문제, 특별히 과학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목회자의 영성문제를 다룬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해 지난 1992년 3월에 개원한 이래 총 여섯 차례의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대학기 700 ~ 800명의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계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도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현대교회의 목회방향을 새롭게 조망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네 학기를 수료한 목회자들로 동문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와 기도협력을 통해 교회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좀 더 폭넓은 목회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제 7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일 / 1995년 2월 13일 ~ 3월 27일
-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의 신청서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517-7651 ~ 5, 팩스 512-1225)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프로그램

주제 - 『목회와 영성』

· 때 / 3월 27일 ~ 6월 5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 곳 / 강남 YMCA 대강당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3/27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교회갱신과 영성 임 옥 목사 (한기총 회장)
4/3		선지자들의 영성 김정우 박사 (총신대 교수)
4/10		요한 신학에 나타난 영성 이상훈 박사 (서울신대 교수)
4/17		청교도들의 영성 원종천 박사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4/24		요나단 에드워드의 영성 S. 로간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5/8		성령운동과 영성 김의환 박사
5/15		설교자와 영성 임영수 목사 (영락교회 담임)
5/22		예식과 영성 정장복 박사 (장신대 교수)
5/29		바울 목회와 영성 박형용 박사 (합동신학교 교수)
6/5		기술사회와 영성 오성춘 박사 (장신대 교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

'95 겨울 성경학교 일제히 개막

참석을 독려하고, 기도의 지원 아끼지 말자

겨울방학기간을 통하여 집중적인 영성 훈련을 하는 교회학교 대학부의 겨울수련회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의 겨울성경학교가 이번 주간에 열린다. 매주 일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교사들은 주일에 미처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효과적인 계절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계절학교 기간은 학부모들도 교회학교 교육에 평소보다 관심을 갖고 학생들과 함께 기

도하는 기간이 된다. 이번 기간이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동시에 주변에 아직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교회학교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겠다.

중등부와 고등부, 청년부가 이미 지난 달에 수련회를 마쳤고, 이번 주를 끝으로 각 교회학교의 겨울 프로그램이 모두 막을 내리게 된다.

부서	주제	일시	장소	강사
유치부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23(목) ~ 24(금), 9:30 ~ 12:30	별관 유치부실	김경아 전도사
유년부	하나님과 맺은 약속	23(목) ~ 24(금), 10:00 ~ 14:30	3층 유년부실	이종윤 목사, 박종상 전도사
초등부	하나님과 맺은 약속	23(목) ~ 24(금), 10:00 ~ 14:30	4층 초등부실	이종윤 목사, 권상석 목사, 박종상 전도사
사랑부	새롭게 변화된 나	21(화), 10:00 ~ 16:00	별관 사랑부실	임진택 목사
대학부	새 사람이 되자	20(월) ~ 22(수), 2박 3일간	광성교회훈련원	이종윤 목사, 오성종 목사

창세기 강해



순례자의 역행

(20장 1 ~ 18절)

이종운 목사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이방인으로부터의 책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아브라함은 그랄 남쪽 지방으로 이사합니다. 낯선 지방에 도달한 아브라함은 빼어난 외모를 지닌 아내 사라로 인해 자신에게 해가 닥칠까봐 거짓을 말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라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그의 일생에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를 때에는 힘이 들지만 떨어질 때는 한순간에 미끌어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의 신앙을 사랑할 수 없고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 비겁한 죄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습니다. 성경은 인간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국 자신의 판단을 의존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아브라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가르치던 사람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실수하고 비겁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 과거의 죄를 반복한 죄

아브라함이 시험이 닥칠 것을 미리 염려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75세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올 때에도 그러했고, 77세 때 흉년이 들어 애굽 땅에 먹을 것을 구하려 갈 때에도 그와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졌을 아브라함이 이전과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범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히 자복하고 청

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죄의 뿌리를 남겨 두면 그 죄가 다시 짝이 나고 고개를 쳐 들고 더 큰 죄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범죄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도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거듭하는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을만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혹 부지 중에도 지은 죄가 있다면 속히 청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실수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깨끗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빛되신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자복했더라면 더 이상 복잡해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범한 죄 중에 아직 자복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학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3. 순간적으로 믿음을 상실하여 지은 죄

예수님의 책망 중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책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여는 모든 것의 나아갈 길을 방해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시이소소를 탈 때와 같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잘 안보이고, 반대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높아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지 보호와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지만 이방인에게까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나와...” 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견해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다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면 지은 죄를 인해서 더 이상 울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며 나아가 다른 형제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성숙한 한국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킬림 ✦

주님은 잘난 사람들을 가시나무로 보시고 못난 나를 백합화로 보아 주신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이기에 나만이 해야 할 사명이 더욱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는 핑계로 사명을 포기하고 밤이 어둡다고 등불을 꺼버린 어리석은 내가 아니었던가. 밤이기에 등불의 존재 의미가 있고 가시밭이기에 백합화의 사명은 더욱 큰 것이리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화원에 핀 백합화라면 안전이 보장되었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치명적 수난이 계속된다. 그리스도인의 수난은 운명적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안이지 안일이 아니다. 안일은 무사를 전제하지만 평안은 고투 끝에 오는 승리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순례자 캠페인 -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4 진단 / 개인 기도생활과 기도 모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 ①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배운다.
- ②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 ③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 (홍해작전, 비전2000운동)
- ④ 진단 / 개인 기도생활, 기도 모임
- ⑤ 제언

♀ 리는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위해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남을 집에 방문해서도 기도 먼저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한다. 난제에 부딪힐 때 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하기도 한다. 좀더 적극적인 성도들은 개인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를 위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기도 한다.

성령충만한 생활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날마다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간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또한 기도가 신앙생활과 교회성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

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좀더 능력있는 기도를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간절하게 쏟아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틀을 정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으나, 균형잡힌 개인 기도생활을 위하여는 ①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경배, ②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 ③지은 죄에 대한 자백, ④절실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공급을 요청하는 간구, ⑤다른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한 기도의 다섯가지 형태를 조화있게 갖추는 것이 좋다.

대부분 개인기도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의 여건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장소보다 방법 - 즉 마음의 골방 - 을 중요시하셨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밀한 중에 드려야 할 개인적인 기도 뿐 아니라 전도회나 다락방 모임 등 모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한다. 그런데 모임 자체가 기도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찾을 수 있다.

다원화된 생활 속에서 각자의 일이 다양하고 분주하며, 더욱이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오직 기도할 목적으로 시간을 따로 떼어 모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굳이 모여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 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 모임은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은혜의 방편이다 (마18:19, 20). 그룹기도는 개개인보다 하여금 더 큰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별히 소그룹 형태로 기도 모임이 이루어 질 때에는 서로의 관심과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공유하며, 약한 부분을 서로 채우는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자칫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담이나 음식 대접, 친교 등에 지우쳐 영적이어서 할 기도 모임이 사교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동 관심을 표명하는 일임을 잊지 말고 모든 대화와 구성원간의 교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기도모임들은 그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건전한 방향으로 계속 성장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먼저 자신이 작은 기도 모임의 일부분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생동감 넘치는 기도모임으로 인도되거나 혹은 헌신된 자신을 통해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 광야의 소리

가뭇터마른 땅에 ...

물 문제로 야단이다. 예년에 비해 46%밖에 안되는 현재의 강수량에 앞으로라도 가뭄이 계속 된다면 전체 논의 약 삼분의 일이 모내기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농업용수가 없어 조업이 단축되고 있고 많은 공장들이 조업 중단 위기에까지 와있다. 식수부족에 수질오염의 악화는 전국적으로 심각해져 남부 지방 뿐 아니라 중부 지방 댐들도 한계 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절수를 촉구하는 노란색 에드벌룬이 서울 하늘에도 뿜다. 힘을 다해 가뭄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으로 절수를 위한 갖가지 홍보가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며 저수지를 더 깊이 파기도 하고, 지하수를 끌어 올 리기도 하며 장기화 될 가뭄에 대한 장기적 대책의 필요성을 운위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 나 자신부터 지혜와 힘을 다해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인간의 온갖 것을 다 동원한다해도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아낄 물조차 없을 날이 닥칠런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기상 이변이 자연의 분노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작년 여름의 습막힐듯했던 더위와 계속되는 가뭄의 원인을 생각하면 이제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창조질서를 어지럽힌 인간의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일만이 가장 근본적인 가뭄 대책이다.

▶ 제6차 킷치 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③

파키스탄 - 여기가 땅 끝 -

파키스탄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

- ① 교회의 부흥 / 교육의 부족, 가난, 문맹 등으로 영적 수준이 하락되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마법행위를 하고 있다. 몇몇 부족을 제외하고 수십년동안 중요한 교회성장은 전혀 없었다.
- ② 교회 내의 영적 지도력 / 지도자들의 자리다툼, 소송사건, 파벌싸움, 교파분열의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다. 다행히도 건전한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영성과 경건의 본을 보이도록 기도하자.
- ③ 비기독교인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용기 / 모든 상황이 기독교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위축되어 있고 침묵하고 있다. 현지 선교사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회교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도전한다. 이러한 도전이 모든 회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④ 파키스탄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 / 몇몇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기도모임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변은 자주 위협을 당한다. 기도로 응원하자.

2월 새가족 환영회

26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새가족부에서는 26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환영회를 가진다. 2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도록 한다.

환영회는 새가족들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안내를 받고 교우들과의 인사를 나누며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받는 순서로 진행한다.

세무상담 시간 변경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법률, 세무, 가정 문제를 돕기 위해 법조인과 가정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해 오던 세무상담의 시간이 주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로 변경되었다. 법률상담은 종전과 같이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이며, 가정상담도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다. 장소는 4층 부속실.

▶「100교회운동」자매결연 현황

105개 교회 후원자 확정

1995년 2월 15일 현재

■ 남산교회/20교회 ■ 여전도회/29교회 ■ 개인·가정/54교회 ■ 다락방/8교회 ■ 교회학교/3교회 ■ 찬양대/1교회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102	—	정립중앙교회	정재술(목 사)	박준구, 김재춘
103	전수노회	화봉교회	김용오(전도사)	양재, 한신 다락방
104	충북노회	노티교회	고병채(전도사)	박명석
105	충북노회	속리산교회	김병균(목 사)	이남호

■ 문의 및 후원신청 「100교회운동 본부」 ☎ 517-7651

▶정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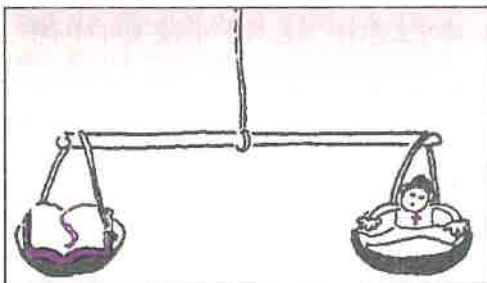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65	전북동노회	진도교회	채경석(전도사)	이남호→최중시
77	충북노회	의천교회	김종성(전도사)	박가원, 이태림
78	충북노회	종곡교회	곽노형(전도사)	이태림→무명 1

순례자 생각

절제란 잘 쓰기(?) 위한 것

올해 초에 범교회적으로 「정직·절제·사랑 실천운동」이 시작되었다. 민족과 사회를 걱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슬선해야 할 일이지가 교회들이 힘을 합한 그와 같은 움직임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을 '운동'으로 일으켜야 할 만큼 순결함을 상실한 것일까 하는 쓸쓸한 마음도 감출 수는 없었다. 인간 본성이란 본래 죄에 오염된 것이어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더 갖고 닦여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에 지금까지 힘써 온 것에 더욱 박차를 가해 각성과 협력을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본다.

- ⑤ 혼수를 최소화하고, 기독교인 신랑은 혼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결혼식은 간소하게 한다.
- ⑥ 미혼인 사람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한다.
- ⑦ 자원재활용을 위한 노력과 물품의 재사용을 생활화한다.



우리교회는 특별히 절제하는 삶이 경건과 이웃 사랑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환경과 자연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생활 지침을 발표하였다.

- ① 사치와 허영의 죄를 회개한다.
- ② 사치품을 배격하고 의생활을 검소하게 하며 일용품은 절약한다.
- ③ 식단은 간소하게 하고 음식은 남기지 않는다.
- ④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절제라고 하면, 대부분 절약을 떠올린다. 그런데 우리가 아끼고, 줄이고, 간소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절제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불필요한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줄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복음에 유익되는 말, 감사한 말로 채우는 '언어의 절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며 부지런히 자기 개발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시간 사용의 절제'다. 힘이 있다면 남용하지 않고 일하고 봉사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힘(권력)의 절제'다. 물론, 자축하기를 배우고 욕심내지 않으며 이웃을 위해 잘 쓰기 위한 것에 동기를 두고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경제생활에서의 절제'도 간과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제(self-control)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제다.

우리가 본성을 거스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려는 이유는 선한 일에 바르게 쓰기 위함이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가물어 매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2. 교회학교의 겨울수련회, 겨울성경학교를 위해
3.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의 준비를 위해
4.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5. 더욱 힘써 정직과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